

오피니언

다산포럼

조상호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꼭 가보아야지 하면서도 시속의 일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애써 욕망을 잠재웠던 곳이 있다. 우연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속으로'에서 그곳이 소개되기도 하면 집회로의 불시처럼 되살아나는 가고 싶은 그리움의 갈증이 있다.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이기에 일상의 무게를 떨쳐내지 못하는가 하는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동서양의 접점이며 중국 시안까지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된 곳, 보스포루스 해협,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은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후에 터키가 그곳이었다.

신에게 바치는 자존심이었고 온 세상에 떨친 화려함의 극치였다. 직경 30미터 높이 55미터의 웅장한 중앙탑은 세계 최대 규모로 2300명의 대성당을 기둥 하나 없이 성전으로 받쳐주는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경건한 그 자체였다. 수차례 지진을 견뎌냈고 1천 년이 지나 이슬람의 손에 들어간 뒤에는 종교적 차이 하나만으로 회칠 된 황금 모자이크 벽화는 화반쪽이 떨어

세계를 제패한 칭기즈칸의 몽골제국은 노마드 정신으로 바닷길의 제국이던 이를 그대로 남아 있는 흔적이 별로 없지만, 오스만의 투르크제국이 거대한 석조물로서 그들의 표상을 남긴 것은 종교전쟁에서 승리한 욕망의 정치적 표현이었는지 모른다. 그 승리의 자리에 바티칸의 두 배 크기인 21만 평 규모의 톱카프 궁전을 지어 제국의 수도로 삼는다. 이제는 개방된 제국의 보물창고에는 주위에 49개의 조그만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무려 86캐럿의 초대형 다이아몬드, 6666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황금촉대, 2만5000 개의 진주로 장식된 황금 도금된 왕좌, 왕자의 황금 요람 등이 제국의 영광을 노래한다. 300~400년 살아남은 거목의 숲길 사이로 세계 각

성소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 유럽의 신흥 해양세력에 밀리던 오스만 제국이 그 위엄을 세우려고 몸부림친 마지막 불꽃이 1856년 보스포루스 해협에 완공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톱카프 궁전이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 버킹엄 궁전을 능가하려고 8만3000 평의 부지에 웅장한 술탄의 문과 285개의 방, 43개의 연회실을 갖추었다. 화려한 실크 카펫과 같은 550평 규모의 그랜드 홀에는 45미터의 천장에 걸린 4.5톤의 상들리에가 750개의 촛대를 꽂고 그 위엄을 자랑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선물이라 한다.

1922년 공화정의 시대를 연 '터키의 아버지' 케말 파샤(장군)가 앙카라에 수도를 정했지만 이 궁전에서 집무를 보기도 했다. 대제국의 후예인 그가 꿈꾸었던 공화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 집무실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유럽, 중국에서 들어온 온갖 자기와 일상 가구, 장식품, 1400개 유리창문의 화려한 커튼들이 어우러져 궁전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듯하다.

이들처럼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화국 집무실이 일제 잔재인 조선총독부를 역사에서 지워낸 경복궁 근정전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소박한 상념들이 햇살 좋은 늦가을의 지중해를 향한 파도에 부서지고 있었다. 문득 눈을 들면 무슨 국경일이었는지 크리스마스 빨간 바탕에 노란 초승달과 별 하나가 박힌 터키 국기가 이스탄불의 하늘을 덮으며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추나출판 대표이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터키 궁전

어저 나간 틈으로 간간이 드러나는 화려함으로도 사람들을 압도한다. 특별기법의 모자이크여사시인 벽화 속 그리스도의 노동자가 계속해서 나를 뒤쫓는다.

13세기 말부터 400년간 세상을 뒤흔들었던 오스만 투르크제국은 1453년 이슬람 세계의 중심에 알 바하 있는 로마가톨릭의 동쪽 끝 천혜의 요새이자 상징인 3층의 성벽에 둘러싸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 동로마제국의 숨통을 끊는다. 그 자리에 이슬람의 이스탄불을 건설한다. '모마인'으로 유명한 시오노나미키가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안타까워하는 것도 기실은 가톨릭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파스 로마 이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국에서 온 크루즈여행객 3000~4000명이 관광 차를 기다리고 있다.

17세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 접전을 벌이고 로마 그리스 신화의 지중해를 지배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에 조성된 술탄 아흐멧 광장에는 이집트 정복을 기념하여 육소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우뚝하고, 소피아 성당보다 큰 사원 복합단지인 블루모스크가 6개의 거대한 첨탑과 함께 이슬람의 종주국임을 웅변한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스크는 직경 23미터의 중앙 돔이 43미터의 하늘에 걸려 우아함을 뽐내고, 내부는 이즈텍에서 가져온 토틸, 포도, 석류 등이 청색으로 디자인된 2만 개가 넘는 명품 타일로 덮였으며, 바닥에 깔린 거대한 실크카펫가

시설

민주, '호남 희생양' 삼은 게 공천쇄신인가

민주통합당이 5일 현역의원 6명을 탈락시키는 호남지역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탈락한 현역 의원이 4명에 달하고 이미 현역의원 3명 명은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동구까지 포함하면 물갈이 폭은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동안 지역정가에서 나뉘던 민주당의 '호남 물갈이'가 현실화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이 기대했던 쇠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특정지역 즉 호남을 희생양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호남 물갈이 공천 이전까지 이뤄진 147개 선거구에서는 현역의원 탈락이 전무하고 전·현직 의원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이를 놓고 당 내외에서 무원칙, 무쇄신, 무감동의 3무(無) 공천이라는 비난이 비등했다. 심지어 계파공천, 기득권 공천으로 원칙과 명분이 본질적으로 훼손됐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현역 대폭 물갈이라는 호남 공천결과는 호남을 희생양 삼아 현역 교체비율을 높여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또한 호남에서 현역을 대거 바꾼 것은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지역적 정치 성향 탓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지역민이 바라던 당의 진정한 혁신·쇄신 공천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많은 의원이 물린 수도권 등을 뺀 특정 지역 희생은 숫자 놀음을 위한 일괄적인 공천 포수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 유권자를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다. 무엇보다 호남 희생양은 지역의 정치적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민주당은 특정지역을 희생양 삼은 공천으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천쇄신을 서둘러 단행할 바이다.

영·유아 시설 폐쇄회로 관리강화 시급하다

최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에서 폭행사건 또는 안전사고가 잇달아 현장 보존자료 확보 차원의 CCTV(폐쇄회로)TV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CCTV 영상 삭제·보관 권한이 시설장에 일임돼 있어 불리할 경우, 삭제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유아 시설에서 폭행사건 또는 안전사고가 잇달아 현장 보존자료 확보 차원의 CCTV(폐쇄회로)TV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CCTV 영상 삭제·보관 권한이 시설장에 일임돼 있어 불리할 경우, 삭제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4살짜기 딸의 폭행과 관련, 부모가 해당 교사와 이사진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는 딸이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유치원의 폐쇄회로를 확인했다. 교사가 딸의 뺨·머리를 때리고 다른 2명의 유아 폭행 모습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을 보고 항의,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하지만, 분이 덜 풀린 부모는 뒷날 유치원을 찾아 문제를 삼으려 했으나 이사진은 영상기록을 삭제한 뒤 사건을 부인했다.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과수를 통해 1분 분량의 영상만 간신히 복

구, 기소했다. 부모는 최소 6개월 이상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복원된 영상 분량만큼만 적용, 해당 교사와 이사진에 각각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의사표현력이 부족한 유아 폭행에 대비, 부모들은 CCTV가 설치된 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법적 기준이 없어 문제가 폭행이 있어도 어린이의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록을 1년 이상 의무보존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아이들은 인질과 같다. 아이를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데다 자칫 교사의 눈 밖에 나온 다른 해코지를 염려해야 한다. CCTV 관리기준 마련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그들을 고용·통솔하는 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박행순

네팔의 고산 지대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반면, 카트만두 분지에는 한겨울에도 평균 온도가 영상 7, 8도 정도여서 엄동설한(嚴冬雪寒)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하지만, 지난 겨울에는 카트만두 외곽에 눈이 내리고 혹독한 추위를 겪었다고 한다.

네팔의 주택들은 창이 허술해서 바람막이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데도 많은 네팔인 가정에서는 난방 없이 겨울을 지낸다. 출창과 문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은 뺨속까지 시리게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겨울 강추위에 하루 여섯 시간만 전기를 공급하는 날이 많았고 석유와 가스도 동났다. 난방은커녕 때맞춰 음식 만들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지금도 가게 앞에는 가스

네팔의 겨울나기

통을 든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린다.

내가 근무하는 파탄의대에는 병원 덕분에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데도 낮에 사무실에서는 거의 모두 전기를 끄고 지낸다. 아직은 전기로서 최대한 전기를 아껴야하기 때문에 절전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다.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고 수도물도 부족하여 제한 급수를 하는 터에 더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진다.

어제 고공스러운 것은 대다수의 네팔인들과 외국인들이며 부자들은 집에 자가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 겨울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카트만두 시가지의 땅값이 열 배, 스무 배로 올랐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갑자기 생겨난 땅 부자들을 보면서 열심히 일할 맘이 생기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며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염려한다. 정부를 원망하고 정치가들의 무능함을 비난하면서 아예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

을 듣기가 딱하다.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가졌던 기대가 갖기에 실망도 큰 것 같다.

교민들은 우리나라 60년대 석탄 난로 비슷한 모양의 난로를 고안하고 주문 제작하여 장작을 때면서 겨울을 이겨냈다고 한다. 자연의 혹독한 추위에 맞서 온돌을 개발한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민족의 후예답다.

그 난로를 보니 스텐드시락들을 난로 위에 잔뜩 올려놓고 위아래를 바꾸어 가며 뜨겁게 데워먹던 화창 시절이 생각난다. 반세기 전에는 네팔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거의 비슷했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상위 10위권에 육박하고 네팔은 하위 10위권에 머무르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만든다.

큰 마트에 갔다가 연탄을 보았다. 구멍을 세어보니 신기하게도 19개, 우리나라의 19공탄과 똑같은데 부서져 보이고 높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생각났다. 가벼워져 연탄과 번개탄을 섞어 놓은 것 같았다.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고 난방도 한다는데 집안에서 사용하기에는 안전성이 떨어졌었다. 시간 맞춰 연탄을 갈던 생각, 연탄가스를 마신 친구가 응급실에 실려 가던 생각이 났다.

이 나라에 살면서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도 당시처럼 살던 때가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다른 희망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겨울 동안에 거칠어진 얼굴을 손질하려 한다는 친구를 따라 피부미용실에 갔다. 간이침대가 세 개 놓여있고 침대 위에는 얇은 이불이 덮여있다. 이불 속에 누우니 발 쪽에 핫팩이 있어 따뜻하다. 여러 가지 오일과 크림을 바르며 한 시간 남짓 마사지를 하는데 손끝이 닿는 곳마다 사뭇 강한 파동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면서 시원했다. 마사지 가격이 천 루피, 우리 돈으로 1만5000원쯤 된다. 임금 수준은 우리의 십분의 일 정도인데 피부마사지 값은 거의 때맞춰야 엄청난하게 비싼 편인데도 손님들이 많다.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는 여심은 매끈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위하여 기계적 지갑을 열고 비싼 값을 지불한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파탄의대 객원교수>

기고

2012년을 선진 선거문화 정착 원년으로



김종곤

2012년 올해는 임진년 '혹룡의 해'여서 신비로운 용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우리 선거사에서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한 해에 치르게 된다. 혹룡의 기운을 받아 두 개의 양대 선거를 통해 좋은 기운으로 대체하는 임진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따라서 오는 4월 11일에 있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두 달여를 남겨두고 유권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다. 먼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 라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연적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주인공임을 천명한 보장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보장장치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다.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투표하고 싶은 생각 또는 표를 줄 후보자나 정당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

그렇듯만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책임의식의 부재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인으로서, 내가 행한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치판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보면 현연·자연·확연 등에 연계된 투표행태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엔 막걸리 한 잔에 고부신 한 켄레, 설한 한 포에 크게 은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했다. 아직은 완전한 공명선거가 치러 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공명선거를 몸소 실천하려는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 타락선거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선거관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선거법 위반 행위자가 많고 이를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행위에 편승하려는 자들도 있다. 그들이 바로 '선거브로커', '자원봉사자'라는 직함을 가진 자들이

다. 이러한 암적 존재들이 상존하는 한 우리가 바라는 '공명선거'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선거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가끔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듣는 '과태료 부과'제도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과태료 부과 제도는 금품 선거를 배격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금품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벌을 줘야 한다는 양벌적 성격의 징벌이다. 이 제도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품금액의 50배 이상의 금액을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식사를 후보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물어야 하는 제도다.

포상금 제도의 개요는 신고한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신고된 내용이 위반 행위를 적발 조치하는 기여도 등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를 잘 뽑는 게 우선이다. 올해가 혹룡의 해인 만큼 강한 기운과 지혜를 받아 현연·자연·확연 그리고 금품으로부터 자유로운 선진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원한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차르(황제)가 돌아왔다' 러시아에서 첫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60) 현 총리가 당선된 직후에 나온 언론의 일성이다. 지난 2000~2008년 대통령직(임기 4년)을 연임한 푸틴은 지난 4일(현지시간) 실시된 제6대 대선에서 승리해 3선을 달성했다. 애초 4년이었던 러시아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드

미트리 메드베데프 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개헌을 통해 6년으로 늘어났다. 푸틴이 새 임기를 무사히 마치려면 그는 무려 14년 동안 권좌를 지키게 된다. 푸틴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다. 우선 구 소련 붕괴 후 혼란에 빠진 러시아를 수렁에서 구해낸 '국민 영웅'이라는 칭송이 따른다. 그러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권력을 휘둘렀다는 혹평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는 구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이자 KGB의 뒤를 이은 연방보안국(FSB) 수장을 역임한 경력을 심분할

대학(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법대 후 배로 정치적 동지관계를 맺어왔던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신은 총리로 물러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너무 영악한 등을 돌렸다. 지난해 12월 총선 때는 러련 거주 러시아 유권자의 40% 이상이 야권에 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푸틴의 3선 도전에 반대하는 시위도 잇따랐다. '돌아온 차르' 푸틴이 거머쥔 3선의 성배는 오로지 그의 행보에 달려 있다.

/*주요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차르'의 부활



/*주요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주요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대발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주요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